

# 1950~60년대 서울에 이런 멋쟁이들이...누구의 사진일까

낡은 벽돌 건물 구멍 사이로 중절모에 양복을 잘 차려입은 남자와 무릎 아래 길이 투피스를 입은 여성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다. 모래사장에 꽂아놓은 우산 위에 중절모를 올려둔 주인은 삼각팬티 차림으로 지금 막 물놀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다. 수영모를 쓴 엄마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물놀이를 즐긴다. 두툼하게 옷을 입은 젊은이들은 스케이트를 타느라 한창이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트래디셔널 캐주얼 브랜드 '빈폴'이 지난달 새로 출시한 티셔츠 프린트 속 사진 풍경들이다. 모두 흑백사진들로 시공간을 가늠할 수 없는 따뜻하면서도 기묘한 분위기다.

요즘 젊은 층을 겨냥하는 패션 상품들은 유행처럼 '협업'을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개성과 취향이 분명한 젊은 세대의 눈에 지루한 올드 브랜드로 보이지 않으려면 그들이 열광하는 젊은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은 필수조건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번 '빈폴'의 협업은 낯설다. 고 한영수 작가가 1950~60년대 활영한 낡은 흑백사진을 활용했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문화 전반을 장악한 '뉴트로'와도 결이 다르다. 뉴트로의 할머니의 옷장 속에서, 엄마의 찬장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젊은 세대가 경험했던 기억을 현대로 소환하는 작업이다. 즉 '언젠가 본 것 같은, 그래서 낯설지만 친숙한 것'이 콘셉트다.

고 한영수 작가의 사진은 6.25 전쟁이 끝난 50~60년대 서울의 풍경이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낯설고 또 낯선 풍경이다. 빈폴은 왜 한영수의 이런 사진을 협업 대상으로 선택했을까.

지난해 로고를 한글 디자인으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브랜드를 강화한 빈폴은 1970년대를 키워드로 문화 전반의 모든 이미지를 검색했다. 빈폴 사업부 R&D 팀의 이정림씨는 "그렇게 찾아낸 감도 높은 사진 10장 중 9장이 한영수 작가의 사진이었다"며 "옛날 사진인데 전혀 촌스럽지 않고, 오히려 고급스러운 미감과 클래식이라고 할 만한 가치를 느꼈다"고 했다.

한영수는 1933년에 태어



▲ ©한영수 Han Youngsoo, 서울 노들섬 Nodeulseom, Seoul 1958~1963. 한영수문화재단 제공



▲ ©한영수 Han Youngsoo, 서울 노들섬 Nodeulseom, Seoul 1958~1963. 한영수문화재단 제공

◀ ©한영수 Han Youngsoo, 서울 명동 Meongdong, Seoul 1956. 한영수 문화재단 제공

손에게 '환쟁이'의 길은 인감생심. 그는 가업인 전자제품 무역업을 물려받고 취미로 사진을 시작한다. 군복무 시절 6.25 전쟁을 직접 겪은 한영수는 제대 후 한국 사진사 초기의 중요한 리얼리즘 사진단체인 '신선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진에 심취한다. 70년대 들어서 백화점 홍보 카탈로그를 찍은 인연으로 이후 광고사진가로 큰 성공을 거둔다. 삼성전자, 수단화화장품 등 90년대 중반까지 그의 손을 거친 광고는 셀 수 없이 많다. 제약회사 '중근당'의 상징인 카달란 구릿빛 종이 화면을 가득 채운 사진도 한영수의 작품이다.

99년 작고한 한영수의 흑백사진 필름을 정리하고 세상에 그의 다큐멘터리 사진들을 소개한 사람은 딸이자 한영수문화재단의 대표인 한선정씨다. 서울에서 사진을 전공한 후 헝가리에서 시각디자인을 공부한 그는 지금까지 혼자서 『서울 모던 타임즈』(2014), 『한영수: 꿈결 같은 시절』(2015), 『시간 속의 강』(2017) 세 권의 사진집을 출판했다.

뉴욕 ICP 마나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한국 사진가로 처음으로 한영수 개인전이 열렸던 것도 한 대표의 노력의 결실이다. 월간 사진은 "당시 뉴욕의 사진 관계자들은 한영수의 작품이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데이비드 시무어, 마크 리부 등 매그넘 작가들의 작품을 연상시킨다며 놀라워했다"고 전했다. 현재 한영수의 사진은 LA의 유명 현대미술관 라크마에도 영구 소장 돼 있다.

외국에서 먼저 알아본 한영수의 사진은 무엇이 다를까. 일단 '이게 50~60년대 서울의 풍경이 맞아'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만큼 한영수의 사진 속 풍경들은 활기차다. 전후 시대 풍경이라면 참혹하게 무너진 피폐한 일상과 곤궁한 표정의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한영수의 사진 속 사람들은 그 예상을 빗나간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무표정하긴 하지만 바쁘게 움직이며 제 할 일에 열심이다.

(...3 페이지에서 계속)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다민족 선교를 지향하는

**캘거리 한우리교회**  
Calgary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우리는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민족을 향해 나가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담임목사: 김재욱 | 교육, 선교 담당: 이강훈 목사, 이한준 전도사 | 차세대 목사: 이민예, 양욱 담당 목사: 오상학

주일 예배	1부(교사)예배	오전 9시 30분
	2부 대예배	오전 11시
	교회학교 예배	오전 11시
	청년예배(KM/EM)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분	
화요일예배	저녁 7시	
토요일예배	오전 7:00	

www.calgaryhanwoori.com

예배처소 : Mount Royal University(Jenkins Theatre)  
4825 Mt. Royal Gate SW. Calgary AB. T3E 6K6

**태양** 정육·반찬·떡집

정육	반찬	떡류	
LA갈비, 찜갈비, 소불고기, 제육볶음, 삼겹살, 목살, 사골	대패삼겹살, 길이삼겹살, 양념갈비, 돼지불고기, 양념불고기, 꼬리, 샤브샤브	김치, 부추김치, 무말랭이, 고추무침, 오징어젓, 마른오징어무침, 멸치볶음	떡국떡, 백설기, 현미절편, 가래떡, 콩백설기, 현미설기, 인절, 무지개떡, 절편, 공찰떡, 송편, 떡볶이떡, 현미공찰떡, 팔시루떡, 현미떡국떡, 녹두시루떡, 현미가래떡

"매달 두번째 화요일 휴업"

떡주문은 2~3일전에 해주십시오!

영업시간 : 월~토 11:00AM~7:00PM / 일요일, 할리데이 11:00AM~4:00PM

**117, 15th Ave. SE Calgary AB**  
**TEL. 403-233-2252 / 613-5977**